

2024
고2 문학
비상

2024 고2 문학 비상 | 2(2)(3) 참새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참새」에 나타난 소재와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글쓰이는 참새가 우리 민족에서 친숙한 새이며 한집안 식구처럼 살아왔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새에게 너그럽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참새를 보기 힘들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고,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가 않다.’나 ‘봄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와 같이 자주 출제되는 구절의 의미도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짹 짹. 짹 짹. 못 참새의 조잘대는 소리. 반가운 소리다. 벌써 아침나절인가. 오늘도 맑고 고운 아침. 울타리에 햇살이 들어 따스하고 명랑한 하루를 예고해 주는 귀여운 것들의 조잘대는 소리다. 기지개를 펴며 눈을 비빈다. 캄캄한 밤이 아닌가.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고 책상 위의 시계를 보니, 새로 세 시다. 형광등만 켜 있다. 다시 눈을 감아도 금방 들렸던 ㉠ **참새 소리는 없다.** 눈은 멀거니 천정을 직시한다.

참새는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다. 꼬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접동새의 구슬픈 노래도 모른다.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완상가에게 팔리지도 않는 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도 매끈하고, 색깔은 검소하면서도 조출하다. 어린 소녀들처럼 모이면 조잘댄다. 아무 기교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으로 재깅재깅 조잘댄다. 쫓으면 후루룩 날아갔다가 금방 다시 온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

진달래꽃을 일명 참꽃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천리강산 가는 곳마다 이 연연한 꽃이 봄소식을 전해 주지 않는 데가 없어 기쁜든 슬픈든 우리의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던 까닭이다.

민요 시인 김소월이 다른 꽃 다 버리고 오직 약산의 진달래를 노래한 것도 다 이 나라의 시인인 까닭이다. 하고한 새가 많건만 이 새만을 참새라 부르는 것도 ㉡ **같은 뜻에서다.** 이 나라의 민요 시인이 새를 노래한다면 당연히 이 새가 앞설 것이다. 우리 집 추녀에서 보금자리를 하고 우리 집 울타리에서 자란 새가 아닌가. 이 새 울음에 동창에 해가 들고 이 새 울음에 지붕에 박꽃이 피었다.

㉢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가 않다.** 제비는 반갑고 부엉새는 싫다. 까치 소리는 반갑고 까마귀 소리는 싫다. 이 참새처럼 한집안 식구같이 살아온 새도 없고, 이 참새 소리처럼 아침의 반가운 소리도 없다.

“위혀어, 위혀어.” 긴 목소리로 새 쫓는 소리가 가을 들판에 메아리친다. 들곡식을 축내는 새들을 쫓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 모르지만 ㉣ **봄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눈에 허수아비를 해 앉히고 새를 쫓아, 나락 먹는 것을 금하기는 하지만 쥐 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 만일 참새를 없애자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드시 추녀 끝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매물하지도 않았고, 이삭이나 북데기까리나 겨 속의 낱알, 수채의 밥풀에까지 인색하지는 아니했다. “새를 쫓는다.”라고 하지 않고 “새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애기같이 귀엽게 여긴 부드러운 말씨다. 그리하여 저녁때는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지금 생각하면 황금빛 들판에서 푸른 하늘을 향하여 “위혀어, 위혀어.” 새 쫓는 소리도 유장하기만 하다. 새보는 일은 대개 소녀들의 일이다. 문득 목단이 모습이 떠오른다. 목단이는 우리 집 앞 눈에 새를 보러 매일 오는 아랫말 처녀다. 나는 웃는 목단이가 공주 같다고 생각한 일이 있다. ㉤ **나보다 너댓 살 손위라 누나라고 불러 달라고 했지만, 나는 굳이 목단이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불러 주지 아니했다.** 그는 가끔 삶은 밤을 까서 나를 주곤 했다. 혼자서는 종일 심심한 까닭에 내가 날마다 와서 같이 놀아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도 만일 지금 살아 있다면 물론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패가한 집을 가리켜 “㉞**참새 한 마리 안 와 있는 집**”이라고 한다. 또 참새 많이 모이는 마을을 복 마을이라고도 한다. 후덕스러운 말이요, 이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참새는 양지바르고 잔풍한 곳을 택한다. 여러 집이 오밀조밀 모인 대촌(大村)을 택하고 낱알이 풍족하고 방앗간이라도 있는 부유한 마을을 택하니 복지일 법도 하다. 풍족한 마을에서는 새한테도 각박하지가 않다. 언제인가 나는 어느새 장수와 만난 적이 있었다. 조롱(鳥籠) 안에는 십자매, 잉꼬, 문조, 카나리아 기타 이름 모를 새들도 많았다. 나는 “참새만 없네.” 하다가, 즉시 뉘우쳤다. 실은 참새가 잡히지 아니해서 다행인 것을……. 나는 어려서 조롱을 본 일이 없다. 시골서 새를 조롱에 넣어 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제비는 찾아와서 『논어』를 읽어 주고, 까치는 찾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고, 꿩꼬리는 문 앞 버들가지로 오르내리며 “머리 곱게 빗고 담배밭에 김매러 가라.”라고 일깨워 주고, 또한 ㉞**참새는 한집의 한 식구**인데 조롱이 무엇이 필요하랴. 뒷문을 열면 진달래 개나리가 창으로 들어오고, 밭을 걷으면 복사꽃 살구꽃 가지각색 꽃이 철 따라 날고, 뜰 앞에 괴석에는 푸른 이끼가 이슬을 머금고 있다. ㉞[여기에 만일 꽃꽂이를 한다고 꽃가지를 꺾어 방 안에서 시들리고, 돌을 방구석에 옮겨 놓고 먼지를 얹혀 이끼를 말리고 또 새를 잡아 가두어 놓고 그 비명을 향락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악취미요, 그것은 ㉞**살풍경**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참새도 씨가 저서 ㉞**천연기념물**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세상에 참새들조차 명맥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생각하면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달 속의 돌멩이까지 캐내도록 악착같이 발전해 가는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다면 무한히 위대하지만, 한편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한 마리의 참새나마 다시금 아쉽고 그리지 아니한가.

연화봉(蓮花峯)에서 하계로 쫓겨난 양소유(楊少遊)가 사바 풍상을 다 겪고 또 부귀공명을 한껏 누리다가, 석장(錫杖) 짚은 노승의 “성진야.” 한 마디에 황연대각, 옛 연화봉이 그리워 다시 연화봉으로 돌아갔다.

짹 짹. 잠결에 스쳐 간 참새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날더러 어디로 돌아가

라는 것인가. 사십 년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네 소리. 무슨 인연으로 사십 년 전 옛 추억-. 가 버린 소년 시절, 고향 풍경을 이 오밤중에 불러일으켜 놓고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이냐. 잠결에 몽롱하던 두 눈은 이제 씻은 듯 깨끗하다.

나는 문득 일어나 불을 피워 차를 달이며 고요히 책상머리에 앉는다.

- 윤오영, 「참새」

1. 밑글에서 ‘참새’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울음소리가 예쁘지는 않다.
- ② 쫓아내도 금방 다시 돌아온다.
- ③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 ④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이다.
- ⑤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는 새이다.

2. ㉞~㉞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㉞: 상념의 계기가 되었다.
- ② ㉞: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 ③ ㉞: 농사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④ ㉞: 작가가 ‘목단’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 ⑤ ㉞: 자연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㉞~㉞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㉞: 모든 미물이 반가운 게 아니라, 참새나 제비, 까치처럼 사람에게 반가운 존재가 따로 있음을 의미한다.
- ② ㉞: 큰 도시보다 작은 마을을 좋아하는 참새의 특성이 담긴 말이다.
- ③ ㉞: 참새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존재임을 나타낸 표현이다.
- ④ ㉞: 조롱 속 새에 대한 작가의 거부감의 표현이다.
- ⑤ ㉞: 과거와 달리 참새를 보기 힘든 현대의 모습을 드러낸 표현이다.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짹 짹. 짹 짹. 못 참새의 조잘대는 소리. 반가운 소리다. 벌써 아침나절인가. 오늘도 맑고 고운 아침. 울타리에 햇살이 들어 따스하고 명랑한 하루를 예고 해 주는 ㉠**귀여운 것들의 조잘대는 소리다.** 기지개를 펴며 눈을 비빈다. 캄캄한 밤이 아닌가.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고 책상 위의 시계를 보니, 새로 세 시다. 형광등만 흰하다. 다시 눈을 감아도 금방 들렸던 참새 소리는 없다. 눈은 멀거니 천정을 직시한다.

참새는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다. 꾀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접동새의 구슬픈 노래도 모른다.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완상가에게 팔리지도 않는 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도 매끈하고, 색깔은 검소하면서도 조촐하다. 어린 소녀들처럼 모이면 조잘댄다. 아무 기교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으로 재깅재깅 조잘댄다. 쫓으면 후루룩 날아갔다가 금방 다시 온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

진달래꽃을 일명 참꽃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천리강산 가는 곳마다 이 연연한 꽃이 봄소식을 전해 주지 않는 데가 없어 기쁘든 슬프든 우리의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던 까닭이다.

민요 시인 김소월이 다른 꽃 다 버리고 오직 약산의 진달래를 노래한 것도 다 이 나라의 시인인 까닭이다. 하고한 새가 많건만 이 새만을 참새라 부르는 것도 같은 뜻에서다. 이 나라의 민요 시인이 새를 노래한다면 당연히 이 새가 앞설 것이다. 우리 집 추녀에서 보금자리를 하고 우리 집 울타리에서 자란 새가 아닌가. 이 새 울음에 동창에 해가 들고 이 새 울음에 지붕에 박꽃이 피었다.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가 않다.** 제비는 반갑고 부엉새는 싫다. 까치 소리는 반갑고 까마귀 소리는 싫다. 이 참새처럼 한집안 식구같이 살아온 새도 없고, 이 참새 소리처럼 아침의 반가운 소리도 없다.

“위혀어, 위혀어.” 긴 목소리로 새 쫓는 소리가 가을 들판에 메아리친다. 들곡식을 축내는 새들을 쫓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 모르지만 ㉣**봄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눈에 허수아비를 해 앉히고 새를 쫓아, 나락 먹는 것을 금하기는 하지만 쥐 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 만일 참새를 없애자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드

시 추녀 끝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매몰하지도 않았고, 이삭이나 북데기까리나 겨 속의 낱알, 수채의 밥풀에까지 인색하지는 아니했다. “새를 쫓는다.”라고 하지 않고 “새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애기같이 귀엽게 여긴 부드러운 말씨다. 그리하여 저녁때는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지금 생각하면 황금빛 들판에서 푸른 하늘을 향하여 “위혀어, 위혀어.” 새 쫓는 소리도 유장하기만 하다. 새보는 일은 대개 소녀들의 일이다. 문득 목단이 모습이 떠오른다. 목단이는 우리 집 앞 논에 새를 보러 매일 오는 아랫말 처녀다. 나는 웃는 목단이가 공주 같다고 생각한 일이 있다. 나보다 너댓 살 손위라 누나라고 불러 달라고 했지만, 나는 굳이 목단이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불러 주지 아니했다. 그는 가끔 삶은 밤을 까서 나를 주곤 했다. 혼자서는 종일 심심한 까닭에 내가 날마다 와서 같이 놀아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도 만일 지금 살아 있다면 물론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패가한 집을 가리켜 “참새 한 마리 안 와 앉는 집”이라고 한다. 또 참새 많이 모이는 마을을 복 마을이라고도 한다. 후덕스러운 말이요, 이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참새는 양지바르고 잔풍한 곳을 택한다. 여러 집이 오밀조밀 모인 대촌(大村)을 택하고 낱알이 풍족하고 방앗간이라도 있는 부유한 마을을 택하니 복지일 법도 하다. 풍족한 마을에서는 새한테도 각박하지가 않다. 언제인가 나는 어느새 장수와 만난 적이 있었다. 조롱(鳥籠) 안에는 십자매, 잉꼬, 문조, 카나리아 기타 이름 모를 새들도 많았다. 나는 “참새만 없네.” 하다가, 즉시 뉘우쳤다. 실은 참새가 잡히지 아니해서 다행인 것을……. 나는 어려서 조롱을 본 일이 없다. 시골서 새를 조롱에 넣어 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제비는 찾아와서 『논어』를 읽어 주고, 까치는 찾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고, 꾀꼬리는 문 앞 버들가지로 오르내리며 “머리 곱게 빗고 담배밭에 김매러 가라.”라고 일깨워 주고, 또한 참새는 한집의 한 식구인데 조롱이 무엇이 필요하랴. 뒷문을 열면 진달래 개나리가 창으로 들어오고, 밭을 걷으면 복사꽃 살구꽃 가지각색 꽃이 철 따라 날고, 뜰 앞에 괴석에는 푸른 이끼가 이슬을 머금고 있다. 여기에 만일 꽃꽂이를 한다고 꽃가지를 꺾어 방 안에서 시들리고, 돌을 방구석에 옮겨 놓고 먼지를 앉혀 이끼를 말리고 또 새를 잡아 가두어 놓고 그 비명을 향락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악취미요, 그것은 살풍경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참새도 씨가 저서 천연기념물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㉔세상에 참새들조차 명맥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생각하면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달 속의 돌맹이까지 캐내도록 악착같이 발전해 가는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다면 무한히 위대하지만, 한편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한 마리의 참새나마 다시금 아쉽고 그리지 아니한가.

연화봉(蓮花峯)에서 하계로 쫓겨난 양소유(楊少遊)가 사바 풍상을 다 겪고 또 부귀공명을 한껏 누리다가, 석장(錫杖) 짚은 노승의 “성진아.” 한 마디에 황연대각, 옛 연화봉이 그리워 다시 연화봉으로 돌아갔다.

짹 짹. 잠결에 스쳐 간 참새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날더러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사십 년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네 소리. 무슨 인연으로 사십 년 전 옛 추억- 가 버린 소년 시절, 고향 풍경을 이 오밤중에 불러일으켜 놓고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이냐. 잠결에 몽롱하던 두 눈은 이제 씻은 듯 깨끗하다.

나는 문득 일어나 불을 피워 차를 달이며 고요히 책상머리에 앉는다.

- 윤오영, 「참새」

4. ㉑~㉔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참새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㉒: 참새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㉓: 모든 미물이 반가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반가운 존재가 따로 있음을 의미한다.
- ④ ㉔: 참새의 이로운 점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 ⑤ ㉕: 글쓴이의 심정을 드러낸 부분으로, 궁금증을 드러낸 표현이다.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참꽃’과 ‘참새’라는 이름에 ‘참’이 공통으로 들어간 이유를 들어가며 참새가 친근한 새임을 밝히고 있다.
- ② ‘참새’로 인해 가까이 지냈던 이웃 마을 누나 ‘목단’이라는 인물을 추억하고 있다.
- ③ 참새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메마르고 삭막한 세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아쉬워하고 있다.
- ④ ‘구운몽’의 한 장면을 삽입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했던 ‘참새 소리’는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 ⑤ 참새를 좋아하면서도 들판의 참새를 쫓기 위해 노력했던 조상들의 삶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신유형

「참새」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글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태도, 너그러운 마음 등 전통적인 것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삭막해진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수필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운몽」의 내용을 언급하며 글쓴이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점 또한 알아 두어야 합니다. 또 학습활동에 제시된 「사리화(沙里花)」와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되었으니 두 작품의 참새의 특징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짹짹. 짹. 짹. 참새의 조잘대는 소리. 반가운 소리다. 벌써 아침나절인가. 오늘도 맑고 고운 아침. 울타리에 햇살이 들어 따스하고 명랑한 하루를 예고 해 주는 귀여운 것들의 조잘대는 소리다. 기지개를 펴며 눈을 비빈다. 캄캄한 밤이 아닌가.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고 책상 위의 시계를 보니, 새로 세 시다. 형광등만 켜있다. 다시 눈을 감아도 금방 들렸던 참새 소리는 없다. 눈은 멀거니 천정을 직시한다.

참새는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다. 꿩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접동새의 구슬픈 노래도 모른다.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완상가에게 팔리지도 않는 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도 매끈하고, 색깔은 검소하면서도 조출하다. ㉠어린 소녀들처럼 모이면 조잘댄다. 아무 기교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으로 재깁재깁 조잘댄다. 쫓으면 후루룩 날아갔다가 금방 다시 온다. ㉡우리 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

진달래꽃을 일명 참꽃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천리강산 가는 곳마다 이 연연한 꽃이 봄소식을 전해 주지 않는 데가 없어 기쁘든 슬프든 우리의 생활과 떼날 수 없이 가까웠던 까닭이다.

민요 시인 김소월이 다른 꽃 다 버리고 오직 약산의 진달래를 노래한 것도 다 이 나라의 시인인 까닭이다. 하고한 새가 많건만 이 새만을 참새라 부르는

것도 같은 뜻에서다. 이 나라의 민요 시인이 새를 노래한다면 당연히 이 새가 앞설 것이다. 우리 집 추녀에서 보금자리를 하고 우리 집 울타리에서 자란 새가 아닌가. 이 새 울음에 동창에 해가 들고 ㉢이 새 울음에 지붕에 박꽃이 피었다.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가 않다. 제비는 반갑고 부엉새는 싫다. 까치 소리는 반갑고 까마귀 소리는 싫다. 이 참새처럼 한집안 식구같이 살아온 새도 없고, 이 참새 소리처럼 아침의 반가운 소리도 없다.

“위혀어, 위혀어.” 긴 목소리로 새 쫓는 소리가 가을 들판에 메아리친다. 들곡식을 축내는 새들을 쫓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 모르지만 봄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눈에 허수아비를 해 얹히고 새를 쫓아, 나락 먹는 것을 금하기는 하지만 쥐 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 만일 참새를 없애자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드시 추녀 끝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매몰하지도 않았고, 이삭이나 복데기까리나 겨 속의 낱알, 수채의 밥풀에까지 인색하지는 아니했다. “새를 쫓는다.”라고 하지 않고 “새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애기같이 귀엽게 여긴 부드러운 말씨다. 그리하여 저녁때는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지금 생각하면 황금빛 들판에서 푸른 하늘을 향하여 “위혀어, 위혀어.” 새 쫓는 소리도 유장하기만 하다. 새보는 일은 대개 소녀들의 일이다. 문득 목단이 모습이 떠오른다. 목단이는 우리 집 앞 논에 새를 보러 매일 오는 아랫말 처녀다. 나는 웃는 목단이가 공주 같다고 생각한 일이 있다. 나보다 너댓 살 손위라 누나라고 불러 달라고 했지만, 나는 굳이 목단이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불러 주지 아니했다. 그는 가끔 삶은 밤을 까서 나를 주곤 했다. 혼자서는 종일 심심한 까닭에 내가 날마다 와서 같이 놀아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도 만일 지금 살아 있다면 물론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패가한 집을 가리켜 “참새 한 마리 안 와 앉는 집”이라고 한다. 또 참새 많이 모이는 마을을 복 마을이라고도 한다. 후덕스러운 말이요, 이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참새는 양지바르고 잔풍한 곳을 택한다. 여러 집이 오밀조밀 모인 대촌(大村)을 택하고 낱알이 풍족하고 방앗간이라도 있는 부유한 마을을 택하니 복지일 법도 하다. 풍족한 마을에서는 새한테도 각박하지가 않다. 언제인가 나는 어느새 장수와 만난

적이 있었다. 조롱(鳥籠) 안에는 십자매, 잉꼬, 문조, 카나리아 기타 이름 모를 새들도 많았다. 나는 “참새만 없네.” 하다가, 즉시 뉘우쳤다. 실은 참새가 잡히지 아니해서 다행인 것을……. 나는 어려서 조롱을 본 일이 없다. 시골서 새를 조롱에 넣어 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제비는 찾아와서 『논어』를 읽어 주고, 까치는 찾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고, 꾀꼬리는 문 앞 버들가지로 오르내리며 “머리 곱게 빗고 담배밭에 김매러 가라.”라고 일깨워 주고,** 또한 참새는 한집의 한 식구인데 조롱이 무엇이 필요하라. 뒷문을 열면 진달래 개나리가 창으로 들어오고, 밭을 걷으면 복사꽃 살구꽃 가지각색 꽃이 철 따라 날고, 뜰 앞에 괴석에는 푸른 이끼가 이슬을 머금고 있다. 여기에 만일 꽃꽂이를 한다고 꽃가지를 꺾어 방 안에서 시들리고, 돌을 방구석에 옮겨 놓고 먼지를 얹혀 이끼를 말리고 또 새를 잡아 가두어 놓고 그 비명을 향락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악취미요, 그것은 살풍경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참새도 씨가 저서 천연기념물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A] 상에 참새들조차 명맥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생각하면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달 속의 돌멩이까지 캐내도록 악착같이 발전해 가는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다면 무한히 위대하지만, 한편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한 마리의 참새나마 다시금 아쉽고 그리지 아니한가.**

연화봉(蓮花峯)에서 하계로 쫓겨난 양소유(楊少遊)가 사바 풍상을 다 겪고 또 부귀공명을 **[B] 한껏 누리다가, 석장(錫杖) 짚은 노승의 “성진아.” 한 마디에 황연대각, 옛 연화봉이 그리워 다시 연화봉으로 돌아갔다.**

짹 짹. 잠결에 스쳐 간 참새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날더러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사십 년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네 소리. 무슨 인연으로 사십 년 전 옛 추억- 가 버린 소년 시절, 고향 풍경을 이 오밤중에 불러일으켜 놓고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이냐. 잠결에 몽롱하던 두 눈은 이제 씻은 듯 깨끗하다.

나는 문득 일어나 불을 피워 차를 달이며 고요히 책상머리에 앉는다.

- 윤오영, 「참새」

6. 이 글의 글쓰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사회 속에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 ② 고전을 인용할 만큼 고전에 대한 교양을 가지고 있다.
- ③ 평범한 대상을 좋아하는 소박한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인간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과학의 진보를 바라고 있다.
- ⑤ 작은 계기로 상념에 잠기는 사색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7. 밑줄 친 ㉠~㉡에서 표현 방법이나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다른 대상에 빗대어 참새의 밝고 명랑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② ㉡: 어휘들을 연쇄적으로 연결시켜 가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참새가 우리 민족의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④ ㉡: 대상을 사람인 것처럼 비유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⑤ ㉡: 삭막한 현실에서 옛것을 잃어 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8.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분석하며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 ② 인과관계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
- ③ 대상에 대한 정서를 회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 ④ 세밀한 묘사를 통해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다양한 예시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9. [A]를 통해 알 수 있는 작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참새와 관련된 추억을 떠올리고 있다.
- ② 참새에 대한 그리움을 역설하고 있다.
- ③ 참새가 사라져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④ 천연기념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⑤ 삭막한 현대 사회에 대한 희망을 점쳐보고 있다.

10. <보기>는 [B]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것이다. <보기>의 내용과 윗글을 관련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중국 당나라 때 연화봉에서 육관 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불도를 닦던 성진은 스승의 심부름으로 용궁에 다녀오다가, 남악 위부인의 시녀인 팔선녀를 만나 복숭아꽃으로 구슬을 만들어 준다. 성진은 팔선녀를 그리워하며 속세의 부귀영화를 생각하다가, 육관 대사의 명으로 팔선녀와 함께 민간 세상으로 추방되어 양소유로 환생한다.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한 후 여러 공을 세우며 승상의 지위에 오르는 동안 팔선녀가 환생한 사람을 차례로 만나 인연을 맺고 화려한 삶을 누린다. 벼슬에서도 물러나 한가로이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어느 가을날,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는 때마침 찾아온 도승에게 불도에 귀의할 뜻을 밝힌다. 도승이 흔쾌히 승낙하며 짚고 온 지팡이로 난간을 두드리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손에 염주를 들고 중의 머리를 한 성진만이 남아 있다.

그 모든 부귀영화가 하룻밤의 꿈이었음을 깨달은 성진은 육관 대사의 법을 물려받는다. 역시 육관 대사의 제자가 된 팔선녀도 성진과 함께 도를 잘 닦아 후에 아홉 사람은 모두 극락세계로 돌아간다.

- ②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 불도를 닦아 극락으로 들어가는 것은 윗글의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는 모습은 윗글의 작가가 참새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④ ‘성진’이 연화봉에서 불도를 닦던 모습은 윗글의 작가가 어린 시절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모습과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인간세계의 ‘양소유’가 ‘성진’으로 돌아갔듯이 윗글의 작가도 인간세계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삶을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양소유’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은 윗글의 작가가 추구하는 참된 삶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짹 짹. 짹 짹. 못 참새의 조잘대는 소리. 반가운 소리다. 벌써 아침나절인가. 오늘도 맑고 고운 아침. 울타리에 햇살이 들어 따스하고 명랑한 하루를 예고 해 주는 귀여운 것들의 조잘대는 소리다. 기지개를 펴며 눈을 비빈다. 캄캄한 밤이 아닌가.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고 책상 위의 시계를 보니, 새로 세 시다. 형광등만 켜 있다. 다시 눈을 감아도 금방 들렸던 참새 소리는 없다. 눈은 멀거니 천정을 직시한다.

참새는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다. 꾀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접동새의 구슬픈 노래도 모른다.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완상가에게 팔리지도 않는 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도 매끈하고, 색깔은 검소하면서도 조촐하다. 어린 소녀들처럼 모이면 조잘댄다. 아무 기교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으로 재깅재깅 조잘댄다. 쫓으면 후루룩 날아갔다가 금방 다시 온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

진달래꽃을 일명 참꽃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천리강산 가는 곳마다 이 연연한 꽃이 봄소식을 전해 주지 않는 데가 없어 기쁘든 슬프든 우리의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던 까닭이다.

민요 시인 김소월이 다른 꽃 다 버리고 오직 약산의 진달래를 노래한 것도 다 이 나라의 시인인 까닭이다. 하고한 새가 많건만 이 새만을 참새라 부르는 것도 같은 뜻에서다. 이 나라의 민요 시인이 새를 노래한다면 당연히 이 새가 앞설 것이다. 우리 집 추녀에서 보금자리를 하고 우리 집 울타리에서 자란 새가 아닌가. 이 새 울음에 동창에 해가 들고 이 새 울음에 지붕에 박꽃이 피었다.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가 않다. 제비는 반갑고 부엉새는 싫다. 까치소리는 반갑고 까마귀 소리는 싫다. 이 참새처럼 한집안 식구같이 살아온 새도 없고, 이 참새 소리처럼 아침의 반가운 소리도 없다.

“위혀어, 위혀어.” 긴 목소리로 새 쫓는 소리가 가을 들판에 메아리친다. 들곡식을 축내는 새들을 쫓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 모르지만 봄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눈에 허수아비를 해 앉히고 새를 쫓아, ㉠ **나락 먹는 것을 금하기는 하지만 쥐 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 만일 참새를 없애자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드

시 추녀 끝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매몰하지도 않았고, 이삭이나 북데기까리나 겨 속의 낱알, 수채의 밥풀에까지 인색하지는 아니했다. ㉡ **“새를 쫓는다.”라고 하지 않고 “새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애기같이 귀엽게 여긴 부드러운 말씨다. 그리하여 저녁때는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지금 생각하면 황금빛 들판에서 푸른 하늘을 향하여 “위혀어, 위혀어.” 새 쫓는 소리도 유장하기만 하다. 새보는 일은 대개 소녀들의 일이다. 문득 목단이 모습이 떠오른다. 목단이는 우리 집 앞 논에 새를 보러 매일 오는 아랫말 처녀다. 나는 웃는 목단이가 공주 같다고 생각한 일이 있다. 나보다 너댓 살 손위라 누나라고 불러 달라고 했지만, 나는 굳이 목단이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불러 주지 아니했다. 그는 가끔 삶은 밤을 까서 나를 주곤 했다. 혼자서는 종일 심심한 까닭에 내가 날마다 와서 같이 놀아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도 만일 지금 살아 있다면 물론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패가한 집을 가리켜 “참새 한 마리 안 와 앉는 집”이라고 한다. 또 참새 많이 모이는 마을을 복 마을이라고도 한다. 후덕스러운 말이요, 이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참새는 양지바르고 잔풍한 곳을 택한다. 여러 집이 오밀조밀 모인 대촌(大村)을 택하고 낱알이 풍족하고 방앗간이라도 있는 부유한 마을을 택하니 복지일 법도 하다. 풍족한 마을에서는 새한테도 각박하지가 않다. 언제인가 나는 어느새 장수와 만만적이 있었다. 조롱(鳥籠) 안에는 십자매, 잉꼬, 문조, 카나리아 기타 이름 모를 새들도 많았다. 나는 “참새만 없네.” 하다가, 즉시 뉘우쳤다. 실은 참새가 잡히지 아니해서 다행인 것을……. 나는 어려서 조롱을 본 일이 없다. 시골서 ㉢ **새를 조롱에 넣어 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제비는 찾아와서 『논어』를 읽어 주고, 까치는 찾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고, 꾀꼬리는 문 앞 버들가지로 오르내리며 “머리 곱게 빗고 담배밭에 김매러 가라.”라고 일깨워 주고, 또한 참새는 한집의 한 식구인데 조롱이 무엇이 필요하랴. 뒷문을 열면 진달래 개나리가 창으로 들어오고, ㉣ **발을 걸으면 복사꽃 살구꽃 가지각색 꽃이 철 따라 날고,** 뜰 앞에 괴석에는 푸른 이끼가 이슬을 머금고 있다. 여기에 ㉤ **만일 꽃꽃이를 한다고 꽃가지를 꺾어 방 안에서 시들리고, 돌을 방구석에 옮겨 놓고 먼지를 앉혀 이끼를 말리고 또 새를 잡아 가두어 놓고 그 비명을 향락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악취미요, 그것은 살풍경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참새도 씨가 저서 천연기념물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세상에 참새들조차 명맥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생각하면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달 속의 돌맹이까지 캐내도록 악착같이 발전해 가는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다면 무한히 위대하지만, 한편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한 마리의 참새나마 다시금 아쉽고 그리지 아니한가.

연화봉(蓮花峯)에서 하계로 쫓겨난 양소유(楊少遊)가 사바 풍상을 다 겪고 또 부귀공명을 한껏 누리다가, 석장(錫杖) 짚은 노승의 “성진아.” 한 마디에 황연대각, 옛 연화봉이 그리워 다시 연화봉으로 돌아갔다.

짹 짹. 잠결에 스쳐 간 참새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날더러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사십 년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네 소리. 무슨 인연으로 사십 년 전 옛 추억- 가 버린 소년 시절, 고향 풍경을 이 오밤중에 불러일으켜 놓고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이냐. 잠결에 몽롱하던 두 눈은 이제 씻은 듯 깨끗하다.

㉠ 나는 문득 일어나 불을 피워 차를 달이며 고요히 책상머리에 앉는다.

- 윤오영, 「참새」

1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 ② 자신의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여 성장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양한 일화를 제시하여 글쓰기가 생각하는 중심 소재에 대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중심 소재를 인간처럼 표현하여 글쓰기와 교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현재형의 짧은 문장을 활용하여 글쓰기가 겪은 사건의 흐름을 속도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12. ㉠~㉣ 중 ㉡와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윗글의 글쓰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쓰기는 아침에 일어나 참새를 바라보며 상념에 빠져들고 있군.
- ② 글쓰기는 목단을 생각하며 어리석었던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군.
- ③ 글쓰기는 참새 소리가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려는 소리였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글쓰기는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하고 있는 현대 문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군.
- ⑤ 글쓰기는 참새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참새의 아름다움과 효용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하고 있군.

14. 윗글을 읽고 ‘참새’라고 불리는 까닭을 유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고 귀여운 새이기 때문이다.
- ②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새이기 때문이다.
- ③ 조상 대대로 그렇게 불러왔던 새이기 때문이다.
- ④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정도로 매우 귀한 새이기 때문이다.
- ⑤ 유·불·선을 관통하는 참된 진리를 지니고 있는 새이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곡식을 축내기도 하지만 봄여름에는 벌레를 잡아 도움이 되기도 하며 새를 쫓지만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고 했으므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는 새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피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접동새의 구슬픈 노래도 모른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쫓으면 후루룩 날아갔다가 금방 다시 온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들곡식을 축내는 새들을 쫓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 모르지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정답 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낄 줄 모르고 소유하려고 하는 현대인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참새 소리를 듣고 참새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은 ‘우리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던 까닭’에 진달래꽃을 ‘참꽃’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뜻이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 ③ 농사에 방해가 되는 벌레를 잡아주니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다.
- ④ ‘나는 웃는 목단이가 공주 같다고 생각한 일이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3. 정답 ②

‘참새는 양지바르고 잔풍한 곳을 택한다. 여러 집이 오밀조밀 모인 대촌(大村)을 택하고 난알이 풍족하고 방앗간이라도 있는 부유한 마을을 택하니 복지일 법도 하다.’를 통해 참새가 풍족하고 큰 마을에 많이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① ‘제비는 반갑고 부엉새는 싫다. 까치 소리는 반

갑고 까마귀 소리는 싫다. 이 참새처럼 한집안 식구 같이 살아온 새도 없고, 이 참새 소리처럼 아침의 반가운 소리도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한 식구’라고 표현할 만큼 참새가 우리에게 친숙하다는 의미이다.
- ④ 조롱 속의 새의 울음을 비명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어디에나 있었던 참새가 천연기념물이 될 만큼 수가 적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 정답 ⑤

참새를 보기 힘들어진 상황에 대한 작가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참새를 귀엽다고 표현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우리나라의 곳곳에 있는 새라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 ③ ‘제비는 반갑고 부엉새는 싫다. 까치 소리는 반갑고 까마귀 소리는 싫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농사를 방해하는 벌레를 잡아주니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5. 정답 ⑤

우리 조상들이 곡식을 먹는 참새를 쫓기는 하지만 잡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참새가 우리에게 친숙한 새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우리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던 까닭’에 진달래꽃을 ‘참꽃’이라고 부른 것처럼 자주 볼 수 있는 친숙한 새여서 ‘참새’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참새에 대한 상념에서 연상된 ‘목단’이라는 인물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그런데 이제는 이 참새도 씨가 저서 천연기념물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세상에 참새 들조차 명맥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생각하면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무슨 인연으로 사십 년 전 옛 추억-. 가 버린 소년 시절, 고향 풍경을 이 오밤중에 불러일으켜 놓고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이냐.’에서 참새 소리가 과거를 떠올리게 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상념을 떠올리게 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6. [정답] ④

‘악착같이 발전해 가는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다면 무한히 위대하지만, 한편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한 마리의 참새나마 다시금 아쉽고 그리지 아니한가.’에서 전통적인 것에 대해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뒷문을 열면 ~ 살풍경이었을 것이다.’에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고 새를 가두거나 꽃을 꺾어 소유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연화봉(蓮花峯)에서 하계로 쫓겨난 양소유(楊少遊)가 ~ 연화봉으로 돌아갔다.’에서 고전 소설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달래꽃이나 참새에 대해 친숙하게 여기며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참새 소리를 듣고 상념에 잠기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7. [정답] ②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연쇄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직유법을 사용하여 참새의 명랑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참새의 울음과 해, 지붕의 박꽃처럼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사물을 연결하여 참새가 우리 민족의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 ④ 새가 『논어』를 읽어 준다고 하거나 소식을 전해 준다고 하는 등 새를 의인화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 ⑤ 과학의 발전도 위대하지만 점점 삭막해지는 현실에서 전통적인 것을 잃어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었으므로 적절하다.

8. [정답] ③

참새를 대하는 우리 조상들의 태도를 떠올리며 참새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대상을 분석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인과관계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 ④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 풍경을 묘사한 부분은 있으나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위함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과거와 현재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가 나타나지만 글쓴이의 분명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예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9. [정답] ③

[A]에서는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고 자연을 소유하려는 생각을 지니는 현대 사회에서 참새가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 ①, ② [A]를 통해 알 수 있는 작가의 태도가 아니다.
- ④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삭막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희망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10. [정답] ③

‘성진’이 꿈에서 깨어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장면을 언급하면서 ‘ 짹 짹 짹, 잠결에 스쳐 간 참새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① 작가는 너그럽고 후덕한 전통적 정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추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④, ⑤ 윗글은 불교적 깨달음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1. [정답] ③

참새와 관련한 여러 일화를 제시하면서 참새에 대한 상념을 드러내므로 적절하다.

- 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자신의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지 않고 성장 과정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 ④ 참새를 ‘한집의 한 식구’라고 표현한 부분은 있으나 글쓴이와의 교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지는 않았다.
- ⑤ 글쓴이가 겪은 사건의 흐름이 속도감 있게 제시되지 않는다.

12. 정답 ③

㉞는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고 소유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①, ②, ④ ㉠, ㉡, ㉢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태도를 볼 수 있다.

⑤ 상념을 마치고 글을 쓰기 위한 것으로 ㉞와 관련이 없다.

13. 정답 ③

‘ 짹 짹. 잠결에 스쳐 간 참새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기지개를 펴며 눈을 비빈다. 캄캄한 밤이 아닌가.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고 책상 위의 시계를 보니, 새로 세 시다.’를 통해 글쓴이가 실제 참새 소리를 듣고 깬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목단이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을 뿐,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지 않다.

④ 윗글에서는 현대 문명이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 않아서 사라지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참새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지만, 참새의 아름다움과 효용성을 알려주려는 내용이 아니다.

14. 정답 ②

‘우리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던 까닭’에 진달래꽃을 ‘참꽃’이라고 부른 것처럼 자주 볼 수 있는 친숙한 새여서 ‘참새’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③, ④ 참새의 이름과 관련하여 윗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참새가 유·불·선을 관통하는 참된 진리를 지니고 있는 새라는 것은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